

‘피겨여왕’ 김연아 허리 디스크 판정 “선수생활엔 문제 없다”

주치의 “초기단계...3~4주 치료하면 완쾌”

김선수 어머니 “국내대회 포기...재활 주력”

‘피겨여왕’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허리 디스크 초기 판정으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대회 참가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일 훈련 도중 허리통증을 느껴 정밀진찰 결과 허리 디스크 초기 판정을 받은 김연아는 3일 오전부터 동대문구 답십리5동에 위치한 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원장 조성연)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보충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병원을 찾은 김연아는 각종 장비를 사용해 이완된 허리 인대를 강화하기 위한 치료와 더불어 매트운동과 수영겉기 등으로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는 데 주력했다.

김연아는 당분간 매일 오전 3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한 뒤 오후에는 2시간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빙상장으로 이동해 스케이트 감각

을 잃지 않기 위해 점프와 스핀 동작을 뺀 채 가볍게 얼음판을 지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세계피겨선수권대회와 4대륙 선수권대회의 참가자격이 걸린 제61회 전국남녀 종합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물론 잠춘 동계아시안게임 출전까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이날 김연아와 함께 병원을 찾은 어머니 박미희씨는 “오는 9일 열리는 제61회 전국남녀 종합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내로 사유서와 진단서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당분간은 재활치료를만 매진할 작정”이라며 “동계아시안게임 역시 현재로서는 딱 부러지게 출전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치료상태를 봐가면서 대회 1주일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김연아의 사유서가 도착하는 대로 피겨경기심판위원회를 열어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빙상연맹의 한 관계자는 “김연아는 워낙 검증이 된 선수라서 이번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위원회도 잘 따져볼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연아의 주치의인 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 조성연 원장은 “디스크 초기 단계에서 발견돼 3~4주만 치료하면 앞으로 선수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빠른 완쾌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2일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허리 디스크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상태로 파악됐다”며 “경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왔고, 경추 5번과 꼬리뼈 1번 사이의 디스크도 부어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디스크 직전 단계인 ‘디스크 팽연’”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축구 광주·전남 내달 중국에서 훈련

전남드래곤즈 등 프로축구 K-리그 14개 구단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달콤한 연말 휴식을 마치고 2007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우선 신임 변병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대구FC, 장외룡 감독이 잉글랜드 연수를 떠나기로 해 박이천 기술고문이 감독 대행 맡은 인천 유나이티드, 최고령 김정남 감독이 한 해 더 팀을 이끄는 울산 현대가 3일부터 첫 훈련에 들어갔다.

제주 유나이티드, 경남FC, 대전 시티즌, 수원 삼성은 4일부터 국내에서 탐금질을 시작하고 FC서울은 터키 출신 새 외국인 사령탑 세를 귀네슈 감독이 임박하는 6일부터 강릉에서 훈련한다.

아무래도 지난 해 하나씩 우승컵을 챙긴 팀들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해발 1,800m 군민서 체력단련 타구단도 본격적인 훈련 돌입

통산 일곱 번째 리그 정상을 밟은 성남 일화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전북 현대, FA컵 우승팀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8~9일부터 트레이닝을 시작한다.

대다수 팀들이 국내에서 열흘에서 2주 남짓 체력 훈련으로 기초를 다지고 이달 말부터 해외 전지훈련에 나선다.

전남과 광주 상무는 2월초부터 해발 1천 800m 고지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체력 기르기에 몰입할 계획이다.

마라토너들의 고지 훈련지로 유명한 쿤밍은 지난 해엔 더 많은 팀들이 찾았지만 올해는 두 팀만 선택했다.

고지훈련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단기간 훈련 효과는 일반 평지 훈련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

서울, 전북, 울산, 포항, 대구 등 다섯 팀은 터키 안탈리아로 떠난다.

지중해에 면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기원전부터 농산물 무역이 성해 성서에도 등장하는 안탈리아는 온화한 기후와 속도별 그라운드 시설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성남과 수원엔 일본 규슈 구마모토로 날아가 2주 가량 전후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제주와 경남은 본고장 브라질로 날아간다.

부산은 오는 27일 스페인 카디스로 떠난다. 대전은 11일부터 키프로스 간다. 입지 여건은 5개월이 가는 터키와 비슷하다.

인천이 좀 특이한 데 일반 휴양지로 유명한 맑은 해변으로 택했다. 16일부터 4주 일정으로 맑은 해를 예정인 인천은 감바 오사카 등 J리그 팀들이 동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 익히기에는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토트넘 잔류는 당연 이적 전혀 생각없어”

이영표 에이전트 밝혀

1월 한달 유럽 프로축구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여러 갈래로 흘러 나오는 이영표(30·토트넘)의 이적설과 관련, 에이전트인 루치엔은 “토트넘에 잔류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영표의 이적 풍문으로는 지난 연말 영국에 기반을 둔 축구 전문 사이트 ‘트리비아 풋볼닷컴(www.tribalfutbol.com)’에서 나온 이탈리아 세리에A AS 로마로의 이적설과 최근 흘러나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트레드스킬 등이 있다.

트리비아풋볼닷컴은 이영표가 지난 해 8월 이적을 추진하다 돌연 거부했던 AS 로마 구단 다니엘레 프라데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영표를 원하고 있으니 24시간 안에 답변을 달라”는 서한을 토트넘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이 보도와 관련해 진척된 내용이나 두 구단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경기에서 대한항공 보비가 삼성화재 김장훈과 김상우의 블로킹벽 사이로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축구 이대로는 월드컵 진출 불가”

오심 대표팀 감독

옛 유고 연방 출신의 이비차 오심(66)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새해 인터뷰에서 “지금 이대로는 일본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갈 수 없다”고 말해 일본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출신 지쿠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은 오심은 “꿈과 현실은 다르다. 어려운 현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꿈에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심은 “호주와 아시아축구연맹에 가입했고 시리아, 바레인, 이라크, 태국이 힘을 늘렸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기존 강호도 경시할 수 없다. 아시아 축구는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며 “일본이 큰 걸음을 내걸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 너무 큰 걸음을 걷다 보면 굴러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 점보스가 삼성화재를 7년만에 격파하는 ‘코트 반란’을 일으키며 돌풍 행진을 이어갔다.

대한항공은 3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삼성화재와 경기에서 브라질 출신 용병 보비의 활약을 앞세워 3-2(25-27, 21-25, 26-24, 25-23, 15-13)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00년 1월9일 슈퍼리그에서 삼성화재를 3-2로 물리친 뒤 포로 출범 후 11연패를 포함해 역대 상대전적 26연패를 거듭하다 7년만에 승리하는 감격을 맛봤다.

지난 두 시즌 연속 4위에 머물렀던 대한항공

대한항공, 7년만에 삼성화재 꺾다

용병 보비 37득점 맹활약 역전승 역대 상대전적 26연패 사슬 끊어

공은 프로리그에서 처음으로 4연승을 달리면서 4승1패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보비는 고비마다 강스파이크와 대포알 서브, 블로킹으로 맹활약해 같은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 레안드로와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1세트부터 레안드로와 보비의 스파이크 대결이 불꽃을 튀기면서 듀스 접전이 펼쳐졌다.

대한항공은 6-6 동점에서 삼성화재 레안

드로의 오픈 공격과 고희진의 블로킹, 김상우의 서브 에이스로 연속 3점을 내줬지만 16-19에서 보비의 강타를 앞세워 20-19로 역전한 뒤 접전을 벌이다 25-25에서 레안드로의 강타와 서브득점으로 기선을 빼앗겼다.

2세트에도 12점을 합작한 레안드로와 신진식의 ‘쌍포’에 초반부터 2-3점차 끌려가다 21-25로 지면서 마지막 세트에 풀렸다.

벼랑 끝에 선 대한항공은 3세트에도 레안드로의 한 번 높은 공격에 고전하며 14-19로

뒤져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강동진의 대각선 강타를 시작으로 내리 5점을 뽑는 저력을 발휘해 19-19 동점을 만든 뒤 시스게임을 펼쳤고 24-24 듀스에서 보비의 스파이크와 신영수의 서브득점으로 한 세트를 만회했다.

기세가 오른 대한항공은 4세트 초반 잇단 범실로 1-6까지 뒤졌지만 보비의 스파이크와 이영택의 블로킹 등으로 10-10 동점을 만든 뒤 23-23에서 신영수의 강타와 상대의 세트범실을 엮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5세트에서도 피를 말리는 승부를 접전을 펼치다 13-13 동점을 만든 뒤 신영수가 스파이크와 블로킹으로 2점을 뽑아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농구협회 집행부 부회장에 신동파 공보이사 이충희

한국 농구의 대표적인 ‘숫쟁이’들이 신동파(63) 씨와 이충희(48) 동국대 감독이 나란히 대한농구협회 집행부에 선임됐다.

대한농구협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동파씨를 협회 부회장에, 이충희 감독을 협회 공보이사에 각각 임명했다.

신동파 신임 부회장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신동파-이충희-고(故) 김현준-문경은으로 이어지는 한국 농구 ‘숫쟁이 계보’의 원조 격이다.

원래 농구협회 부회장을 지내다가 2004년에 부회장직을 물러났던 신부회장은 이번이 두 번째 부회장 취임.

현역 시절 톱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이충희 감독을 협회 공보이사에 임명된 것은 내림새 농구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